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잠언 10:1a] 테드 힐드브란트 지음

푸른 언덕과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시골 마을 외곽에 브래드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솜씨 좋은 손과 현명한 마음으로 유명한 겸손한 목수였습니다. 브래드에게는 아들 헨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눈은 창의력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헨리는 작업실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아버지의 끌질과 나무 조각의 흠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브래드는 아들의 손이 점점 더 안정되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헨리가 자라면서 그의 지혜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목공 기술뿐 아니라 인내, 끈기, 정밀함, 그리고 완벽한 작업의 가치까지 배웠습니다. 브래드는 아들의 발전하는 기술에 종종 감탄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황금빛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어갈 무렵, 브래드는 소박한 집 현관에 앉아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헨리는 눈에 설렘을 담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헨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테이블이면서 나무 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입니다.” 흥미를 느낀 브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헨리가 말하는 동안 그의 말은 우아함과 독창성이 담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각 디테일은 신중하게 고안되었고, 각 곡선에는 그 가족의 목공 스타일에 맞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전문성과 헨리의 창의력으로,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넣는 동안 워크숍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지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마침내 걸작이 그들 앞에 섰다. 단 하나의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스타일을 반영하는 매끈한 곡선으로 장식된 테이블이었다. 브래드는 그들의 작품을 바라보며 자부심으로 눈을 반짝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가슴에 깃들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브래드와 헨리의 장인 정신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실은 단순한 목재 가구를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가족사가 담긴 예술 작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상쾌한 가을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 중에는 갓 깎은 나무 조각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브래드는 다시 한번 집 현관에 섰다. 풍화된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헨리가 서 있었다. 헨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가득 채웠던, 잘 해낸 일에 대한 그리움과 인내, 그리고 만족감이 담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아버지,” 헨리가 평화로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목공 기술뿐 아니라 삶의 기술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큰 아들을 바라보는 브래드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나무에 새겨진 추억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집의 조용한 포옹 속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잠언 10:1a]라는 시대를 초월한 속담의 진실이 다시 한번 삶 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